

광양 금속가공 열처리지원센터 건립 가시화

익신산단에 130억 들여 내년 완공...국·도비 80억 확보 지역 열처리산업 기반 구축 탄력...뿌리산업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익신산단내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조감도) 건립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사업비 130억원 중 8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익신산단 일원에 1740㎡ 규모로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국내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2회)와 산·학·연 기획위원회 운영(6회)을 통해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20억원은 시비와 매칭해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장비 보강과 센터운영 인프라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시는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



정된 익신산단을 중심으로 열처리를 특화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뿌리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시는 입주기업을 위한 분석 장비와 사업화 지원시설 등이 완료되면 금속가공 중소기업들이 더욱 가공을 위해 경남 김해와 창원을 이용하는 등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처리센터는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과 장비도입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열처리 장비선정과 관련, 지역 기업의 수요조사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뿌리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열로, 유냉장치(All case로), 진공로, 질화로, 세척, 쇼트기, 샌딩기 등 7종 8대의 장비도 선정했다.

정승재 광양시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열처리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남지역 뿌리산업단지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진주~광양 전철화사업 2021년 완공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총사업비 2395억 투입

광양시는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 전철화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진주-광양 전철화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해안 동서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약 2395억 원을 투입해 사업 승인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주-광양간 51.5km 복선 비전철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예산 42억원 대비 517% 증가된 259억 원이 반영되었다.

사업이 완료되면 디젤 기관차에서 전기 기관차로 변경 운행하게 되며, 도입될 전기 기관차는 현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인 '임기 내 미세먼저 발생량 30% 감축' 목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 구간에 대한 일괄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 경전선 열차운행 효율화 및 고속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 다.

사업 시행 지역은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 옥곡면

목백리, 광양읍 죽림리 등 3259.0㎡와 진주시 내동면,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북천면 8059㎡를 포함하여 총 사업면적은 1만 1318㎡에 이른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근)은 이번 사업에 대해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 전반기(2011-2015년)사업' 반영을 시작으로 2014년 사전조사,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진주-광양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경전선을 상징하는 지역이다"며 "그동안 전철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규일 진주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고 2025년까지 추진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구간 전철화사업이 포함되면서 동서 간 고속철도 연결도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중국 기업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적극 알릴 것"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 방문 광양제철 등 산업인프라 확인

전남도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

전남도청이 주최한 '전라남도 중국 우호 지역 교류회의' 프로그램 중 전남도의 각 지역 발전상을 보여주는 관광·산업시찰로 광양만권을 방문하게 됐으며 중국 저장성, 장시성, 산시성, 상하이시, 구이저우성, 쓰촨성 중국 6개정부 대표단 15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배후단에 입주한 에이치에이엠 공장을 방문하여 광양만권의 산업인프라를 확인했다.

에이치에이엠은 중국자본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16년 설립된 프리미엄 분류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최근 서측배후단지 8만6316㎡에 177억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광양만권 투자환경을 소개받은 후 김갑섭 청장과 광양만권에 대한 질의 및



지난 28일 전남도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 <광양경제청 제공>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방문단을 대표해 장웨상 저장성 조연원은 "이번 방문으로 광양만권의 투자여건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이번 방문단은 중국에서 투자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로 현지에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광양만권에 에이치에이엠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투자관심도가 높다"며 "이번 방문으로 광양만권과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우호증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희망의 집짓기' 감사패 받아 한국해비타트서 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지난 28일 광양읍 우산리 월파로 하스빌 증축현장에서 열린 '2019 희망의 집짓기 헌정식'에서 한국해비타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광양시 다압면 평화를 여는 마을회관을 안전하고 편리한 보금자리로 리모델링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9월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공사가 전달한 후원금은 한국해비타트를 통해 마을회관(노인정 포함) 등의 싱크대 및 가구 설치, 친환경 도배, 안전계단 및 휠체어 안전턱 공사, 화장실 미끄럼 방지 및 안전 손잡기 공사 등에 사용됐다.

공사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한국해비타트와 '집 고치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평화의 마을회관에 친환경가구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철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지난 28일 광양읍 우산리 월파로하스빌 증축현장에서 열린 '2019 희망의 집짓기 헌정식'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최연철 부사장(사진 맨오른쪽)이 한국해비타트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 2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1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남해안권 상생발전 공동사업 적극 나선다

남중권발전협 정기회 열고 제2관문공항 유치 등 협의

광양 등 남해안 지역 시·군 행정협의체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지난 2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제15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2020년 남해안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 송규근 고흥군수, 조규일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임정주 보성군 자치행정국장 등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주요 협의 안건은 ▲남중권 연계관광과 시티투어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2020년 세입세출예산 승인 ▲협의회 임원 선출 등이다.

올해는 ▲광양-하동 화합의 인도교 설치사업 ▲남해안 휴게소 조성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등 시·군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공동건의(5월)하고, 일부 사업은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에 최종 반영(12월 예정)되는 등 성과로 남았다.

특히 현 섬진강휴게소를 확장하는 남해안 휴게소 조성사업은 취약했던 남해안권 대중교통 연계망을 대폭 개선시켜 앞으로 남해안권 광역 관광 활성화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성에 맞춘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 반영과 협력사업의 실현을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남해안남중권이 가진 콘텐츠의 힘과 신성장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정기회 결과에 따른 내년도 사업예산은 5억 8000여만원으로 남중권 우수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영, 주민생활 밀접분야 합동점검, 문화예술·체육 교류전 등 총 10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남해안남중권협의회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지난 2011년 5월 창립된 이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 02 영신패키지 (200명)** 4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